

健協 崔振學회장 지부 초도순시



지부를 초도순시하고 있는 최회장 사진 중앙

한국건강관리협회 崔振學 회장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협회 각 시도지부를 초도순시하고 지부 업무 현황을 보고 받았다.

崔회장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부업무 현황 돌아보고, 직원격려

협회 발전과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면서, 특히 정확한 검사와 결과처리에 힘써달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崔회장의 순시일정은 다음과 같다.

- 7. 19 서울지부 • 8. 2 강원지부
- 8. 14 인천지부 • 8. 16 경기지부
- 8. 19 경북지부, 대구지부
- 8. 20 부산지부
- 8. 22 대전 · 충남지부, 전북지부
- 8. 23 광주 · 전남지부
- 8. 28 경남지부 • 8. 29 제주지부

광주 · 전남지부 뇌파검사 시작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 · 전라남도지부가 뇌파검사를 실시해 내원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뇌기능 장애의 조기발견을 통하여,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된 이 검사는 뇌기능, 특히 그 활동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두통 · 현기증 · 발작 · 간질 · 운동근육장애 · 수면장애 · 행동장애 · 히스

테리 · 저지능 · 발육장애 · 심적문제 등이 적용되는 검사범위이다.

한편 건협 광주 · 전남지부는 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전화 혹은 내원하여 예약을 해줄 것과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머리의 청결을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광주 · 전남지부로 문의하면 된다.